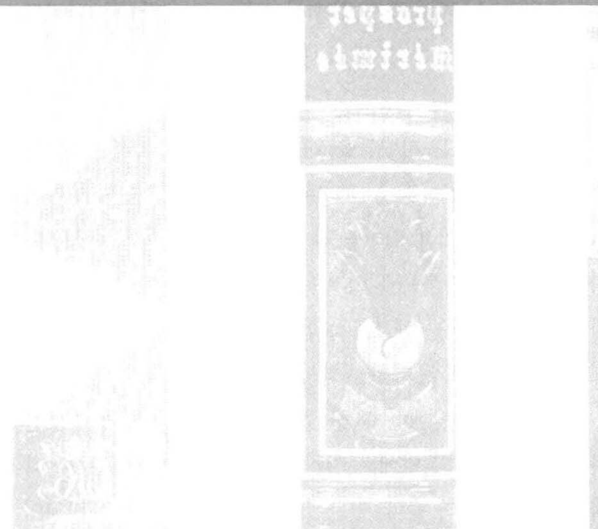
이런 독서운동은?
동사무소와 이 · 미용실, 많은 카페를 자치도서관으로!

차우진
_ 북크로싱 커뮤니티 '책에 날개를 다는 사람들' 카페지기



사실 '독서'는 취미를 묻는 대답에, 좋아하는 일에 대한 대답에, 그리고 바쁘고 여유 없는 일상에 대한 보상으로 제일 만만한 아이템이다. 그러고 보니 독서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매년 9월은 독서의 달이기도 하고, 작년엔 서울시에서 특별히 독서문화주간을 정해 이런저런 독서 관련 행사들을 벌이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글쎄, 이번 달 읽은 책이 몇 권인가라는 질문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흔히 독서를 만만하게 생각하지만, 만만한 건 '독서'라는 말뿐이었던 게 아닐까.

게다가 요즘엔 이런저런 이유들로 '독서운동'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좀 재미있다. '독서'는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것이고 '운동'은 (간단히 말해서) 세상 천지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일 텐데,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놓은 건 '책 읽기를 널리 알리자'라는 뜻일 테다. 독서운동이란 말이 유행처럼 들릴 때도 있으니, 그때마다 역설적으로 '책 정말 안 읽는구나', 란 생각이 들 법도 하다. 내친김에 인터넷에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검색해 보면 '한국인들 ㅇㅇ퍼센트 책 안 읽는다'란 제목이 식상하게 들릴 정도로 많은 양의 기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책 안 읽는 국가에는 미래도 없다'는 말도 있고, 각 세대별로 한 달에 읽는 책의 권수를 제시하는 통계자료도 나온다. 나도 최근엔 한 권도 제대로 못 읽고 있으니, 멀리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책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이니, 책 안 읽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왜 책을 안 읽을까? 도서시장이 불황이라고 하지만, 책이 나날이 고급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완역본이나 개정판, 증보판 등이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예전에 비해 읽을거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지만, 사실 책은 잘 팔리지 않는다. 시립이든 구립이든, 학교든 도서관의 서고에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 이유가 소위 인터넷 탓이라는 말도 그럴듯하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멀티미디어로 옮겨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그럴듯하다. 500페이지짜리 한 권 분량의 책을 다 읽기가 힘에 부치는 까닭은 나날이 조급해지는 세상의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독서운동들이 '발명'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독서운동이라는 것은 학교나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었거나, 돈만 많이 들인 구태의연한 이벤트였거나, 그도 아니라면 흥미 위주의 어떤 것들이었던 것 같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의 독서운동이라는 '책읽기문화 애써 살리기 운동'은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단 얘기다. 말초적이든, 지적이든 그 어떤 재미도 없는 일을 강요한다면 그건 차라리 죄와 같은 일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 동사무소나 우체국 같은 관공서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서 새로 나온 책을 매달 몇 권씩 구비해 두거나, 동네 미용실이나 이발소, 혹은 카페나 식당에 책을 구비해 두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도서기증운동과 독서운동은 자치도서관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공간들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줄여주는 혜택이 있어도 좋을 것 같고. 단골카페에 예전에 읽던 동화책을 놓아두고, 동사무소에서《다 빈치 코드》를 훑어보고, 동네 미장원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을 확인하는 것. 이거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일이란 게, 특히 그것이 문화라면 일단 시작부터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결정하고 그리고 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운동이기도 하고. 실패하면 뭐 어떤가. 다시 더 재미있는 걸 생각하면 되지. 무책임하고 무모한 시도들이 문화를 만든다.